

“밤에도 작업... 견져올린 것 해수부가 처리”

세월호 인양 상하이셀비지 중국인 잠수부·직원 첫 인터뷰 “깜깜한 바닷속 제대로 안보여...미수습 9명 알 수 없어” 화물칸에 실린 것·선체 구멍 낸 이유엔 “모른다” 일관

최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세월호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중국인 잠수부들이 항상 밤에만 물 밖으로 무언가를 꺼내오는 작업을 한다’라는 의혹에 대해 20일 만난 중국 인양업체 ‘상하이셀비지’ 소속 중국인 잠수부와 직원은 “밤에도 작업을 하는데, 뭘을 견져 올리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해양수산부에는 통보하고 있다. 거기서 확인하라”고 답했다. “세월호 화물칸에는 뭐가 실려 있느냐. 100여개가 넘는 구멍을 뚫은 이유는 뭐냐”라는 질문에도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들은 ‘화물칸에 실린 게 뭐냐’ ‘선체에 구멍을 내는 이유는 뭐냐’ ‘선체 일부를 절단하는 이유는 뭐냐’ ‘주로 견져내는 종류는 뭐냐’ ‘그게 침근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화물칸에 들어가 봤냐”라는 질문에, 잠수부 S씨는 “안에 들어가보지 않았다”면서도 “어디가 객실인지, 어디가 화물칸인지, 잠수부는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어 C씨는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 같다. S씨가 일정한 위치에서 일하는 게 아니다. 일하는 위치는 계속 바뀐다”며 “(잠수부가 바다에 투입돼) 내려가면 어두워서 눈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전체

를 볼 수 없어 선실인지 창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씨는 “선체 자체가 쇠이기 때문에 견져 올린 물건 대부분은 쇠덩어리”라며 “바지선으로 올린 물건이나 부품 등은 해수부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배에 실어 육지로 가지고 나가지만 정확한 행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정성욱 세월호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선체를 훼손하지 않겠다던 중국 업체가 화물칸 쪽에만 1m에 달하는 구멍 140개를 뚫었다”며 “무엇을 꺼내기에 충분한 크기인데, 중국인 잠수부들이 낮에도 물건을 꺼내올 수 있는데도 항상 밤에만 물 밖으로 무언가를 꺼내오는 작업을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국인 잠수부와 인터뷰에서 진행된 통화에서 “왜 중국인 잠수부만 쓰는지, 화물칸에 뭐가 실렸는지 (유가족들은) 정말로 알고 싶다”고 말했다. C씨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세월호 참

사 미수습자 9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차가 뒤집히면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다”며 “배도 마찬가지로”라고 설명했다. 미수습자 9명이 세월호 안에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외부 충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를 보기 힘들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답했고, 직원 사이에서 추정되는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의미 없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이야기 안 했다”라고 밝혔다. 상하이셀비지 직원 C씨는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내 생각도 당신들의 생각과 똑같다”며 “사람으로서 누가 봐도 이런 사고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잠수부 S씨는 지난 18일 진도 동거차도 인근 해역 상하이셀비지 바지선에서 인양 작업을 하던 중 북풍을 일으켜 목포로 이송, 맹장 수술을 받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20일 목포의 한 병원에 세월호 인양작업에 참여 중인 중국 업체 ‘상하이셀비지’의 잠수부가 입원해 있다. 그는 지난 18일 밤 북풍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 이튿날인 19일 오후 수술을 한 뒤 회복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믿었던 협동조합에 발등 찍혔네

광산구 청소대행업체 재활용품 처리량 부풀려 착복

광주 광산구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재활용품 처리 규모를 부풀려 구청 예산을 부당하게 탕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민행배 광산구청장이 사회경제적 조직의 대표 사례로 꼽으며 청소차량을 제공하는 등 전폭 지원했던 곳이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클린광산협동조합(클린광산)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잡병(유리병)의 무게를 이중으로 측정, 15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클린광산은 자신들이 수거한 재활용품 무게를 중량페기물 처리업체인 H 환경에서 측정된 후 유리만 별도로 처리하는 G 유리로 옮겨 또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폐기를 처리량을 부풀렸다. 클린광산은 수거한 폐기물 무게에 따라 광산구로부터 대행비를 지급받는 ‘톤당 단가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처리량을 이중으로 계산해 대행비를 더 많이 받은 것이다.

클린광산의 이같은 행태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병채 구의원이 “클린광산 청소구역인 월곡 1·2동과 하남동 인구는 1만9492명으로 지난해보다 2.7% 줄었는데도 폐기를 수집량은 대폭 늘어났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광산구는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클린광산의 부풀리기 물량으로 확인된 차액 1500여만원을 환수하고 이 업체에 경고할 방침이다. 경고 3회가 되면 업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클린광산협동조합은 폐업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청소 노동자들이 만든 청소업체다. 광산구는 장기간 독점 운영의 폐단을 막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4개 민간업체의 청소업무를 광산구시설공단으로 이관했다. 하지만 당시 이관 대상에서 클린광산협동조합을 제외하면서 특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퇴진 현수막’ 광주전공노 조만간 소환 조사

전공노측 “억지 수사” 반발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현수막을 내건 광주시청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에 대한 행정자치부 고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 일정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피고발인 신분이 된 전공노 광주본부 측은 “박 대통령을 비판하며 ‘귀태’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억지 수사에 나선 경찰로부터 소환통보가 오는 대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광주지검으로부터 전공노 광주본부 소속 간부에 대한 행자부 고발장을 넘겨받아 분석한 데 이어 조만간 행자부 공무원을 소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대통령 퇴진 촉구 현수막을 청사에 내건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에 대한 혐의와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행자부에 의해 고발된 공무원 노조원은 10명으로, 이들의 혐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징벌법 등이다. 공무원징벌법의 경우 최근 사실 관계 확인과 징계 요구를 위해 조사를 찾은 행자부 소속 공무원들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한 후 조만간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 광주본부 측은 지난 4일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7일까지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행자부는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 해당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 지난 16일까지 현수막 철거와 관련자 조치(징계) 계획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검찰에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와 별도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가족 동원 위장업체 10개 설립 80억대 학교급식 낙찰

교육청 입찰 시스템 무단접속 경쟁사 정보까지 알아내 광주경찰청 식자재업자 구속

10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80억대 학교 급식을 불법 낙찰받은 급식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업자는 교육청 학교 급식 관리자의 접속 정보를 알아내 입찰 시스템에 무단 접속, 경쟁업체의 정보까지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광주 한 식자재 업체 대표 조모(여·53)씨를 구속하고 조씨가 내세운 위장업체 9개의 전·현직 대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316개 초·중·고교가 입찰 공고한 86억 원 상당의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을 483회 불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은 학교에서 단가를 써내고 이를 입찰 공고하면 추첨·낙찰

된 업체가 공급한다. 각 학교에서는 매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을 이용해 입찰을 공고하고, 업체에서는 투찰가액을 입력하고 낙찰되면 납품을 할 수 있다. 조씨는 자신과 딸, 언니, 지인, 종업원 등의 명의로 10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이들 학교의 급식 입찰에 함께 참여해 낙찰률을 높였다. 위장업체를 동원한 덕에 대부분 5000만원 이하 입찰에 참여했는데도 낙찰률이 높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광주의 학교 급식 식자재 업체는 총 70개로, 10개 업체를 동원한 조씨는 그만큼 낙찰률이 높아졌다. 조씨는 특히 교육청 직원이 사용하는 EAT 관리자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54차례 접속하고 경쟁업체의 입찰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교육청 직원이 아니면 접속할 수 없는 EAT 관리자시스템의 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또 위장업체 가운데 일부를 사회기업으로 승인받고 직원 5명을 허위 등록해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급여·보조금 6000만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제의 상가 분양] 적은 투자로 매달 파박 파박 월 임대료 받으세요~

광주 투자자들 선호하는 Home plus 와 CGV* 1층상가 12월 오픈 예정!

1층 수평형 Mall+56% 테라스 설계 / 고객순환형 동선설계+일반상가 보다 높은 6m 층고

계약면적	21.83 (구)평	25.47 (구)평	35.64 (구)평
실투자금	207,400,000	273,000,000	298,800,000
보증금	20,000,000	30,000,000	30,000,000
월 임대료	1,800,000	2,400,000	2,600,000
년 임대료	21,600,000	28,800,000	31,200,000
대출시 연수익	16,294,000	21,730,000	23,528,000
수익률(예상)	7.9%	8.0%	7.9%

※대출 40%, 금리 3.5% 기준

분양문의 062)412-2237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보이스카프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찬 엔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2중단열 단열방수 | 방수장리 |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 여수대리점 (061) 683-0485 | 순천대리점 (061) 726-0482 | 광양대리점 (061) 795-0485